



"상 주고 3년 저작권 달라"..'이상문학상' 거부 잇따라

강나현 기자 입력 2020.01.06 21:48 수정 2020.01.06 22:54

[앵커]

국내 최고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'이상문학상'은 작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상입니다. 그런데 올해는 작가들이 잇따라 상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주최 측이 상을 주는 대신에, 3년 동안 작품의 저작권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.

강나현 기자입니다.

[기자]

소설가 김금희 씨는 작가 생활 11년 만에 처음 받을 뻔했던 이상문학상을 거부했습니다.

우수상을 받는 조건으로, 작품 저작권을 출판사에 3년 동안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

[김금희/소설가 : 작가에게 불리한 것을 취하고 독자들에게 상을 포장하는 셈이에요. 이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죠. 상의 의미는 격려잖아요.]

함께 수상 명단에 오른 소설가 최은영 씨와 이기호 씨도 "다른 문학상에선 이런 조건을 겪은 적이 없다"며 상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.

이상을 기리기 위해 1977년 만든 이 상은 가장 권위있는 국내 문학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.

매해 발표된 뛰어난 중단편 소설을 골라 대상과 우수상을 엮은 작품집을 1월마다 내놓습니다.

출판사는 대상 작품의 저작권을 3년간 행사해 왔고, 지난해부터는 우수상 작품까지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해왔습니다.

작가들의 수상 거부가 이어지자 출판사는 오늘(6일) 하려던 수상작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.

문단에선 작가들의 소중한 노동의 결과물을 상을 준다는 이유로 빼앗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

2020. 1. 7.

"상 주고 3년 저작권 달라"..'이상문학상' 거부 잇따라 | Daum 뉴스

이번 수상 거부가 출판계의 옳지 않은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

(화면제공 : 소리목·문학동네·서울시여성가족재단·채널예스)